

# 청정 농특산물·문화공연으로 '하나 된 영호남'



16일까지 3일간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2018 영호남 문화대축전' 개막식에서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과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 이용섭 광주시장 등 내·외빈들이 개막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최현배·김진수 기자 choi@kwangju.co.kr

## 39개 시·군 특산물 부스 59곳 문전성시

영호남 지역농가들이 올 한해 정성껏 기른 '청정 농수특산물'이 지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16일까지 3일간 '2018 영호남 문화대축전'이 열린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 일대 '영호남 상생장터'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행사가 시작된 14일에는 개막식이 열리기 전부터 열기가 뜨거웠다. 타악그룹 '얼쭈' 등 지역의 음악예술인이 축하공연을 꾸렸다. 본 행사에서는 화순초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의 소원'과 '고향의 봄'을 하모니로 선보여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열린 '화개장터 경매'에는 인기상품을 최대 절반 할인 가격으로 내놓아 참가자가 몰렸다.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영호남 39개 시·군의 농수축산품 부스 59곳은 열기로 가득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 운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 이달희 경북도 정무실장 등 외빈은 '영호남 상생장터 홍보관'과 각 부스를 돌며 서로의 농산물 가공 수준, 재배 품목을 비교 분석했다.

영호남의 대표 농수축산품은 품질과 맛이 뛰어난 것은 물론 '시중가 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입소문도 인기 한몫했다.

광양 매화빵과 영암 무화과로 만든 설기떡, 무화과꽃 인절미, 무화과 요거트 등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전남 농식품 부스는 하루 종일 문전성시를 이뤘다.

전국 최고의 당도를 자랑하는 대구·경북지역 사과를 판매하는 청송군·영천시 부스 앞에는 첫날부터 구매행렬이 줄을 이었다. 영산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성주군의 '성주참외'는 고객들로부터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영양군에는 광주 출신의 '영양 고추 아가씨'가 자리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다.

대구·경북에 '사과'가 있다면 전남에는 나주 배가 있었다. 영광 굴비와 완도 미역, 광주 김치 등 각 부스마다 마련된 향토 먹거리 시식·시음 코너는 전라도의 넉넉한 인심을 맛보려는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영호남 문화대축전 개막날 행사장을 찾은 김순영(56·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씨는 "대구·경북지역의 질 높은 농수축산물로 추석 차례상을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었다"며 "다음 기회에도 영호남 문화대축전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영호남 문화대축전'이 개막한 지난 14일 김여송(오른쪽에서 두번째) 광주일보 사장과 이상택(맨 오른쪽) 매일신문 사장 등이 '영호남 상생장터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개막 행사에서 화순초 어린이 합창단이 국민대통합과 영호남 상생을 기원하며 '우리의 소원'과 '고향의 봄'을 부르고 있다.



광주지역 타악그룹 '얼쭈'가 식전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